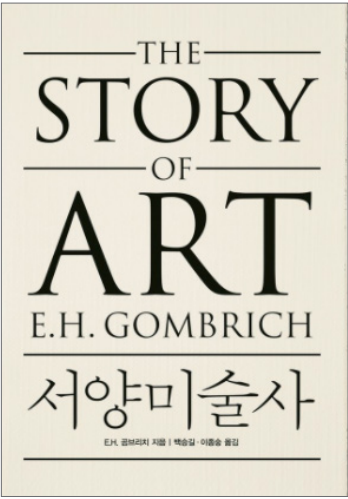


12 기획-비전공자에게 권하는 전공 도서⑫ 고프리치『서양미술사: The Story of Art』



반 고흐 미술관을 방문한 고프리치(왼쪽에서 두번째)

(사진=Wikimedia commons)



E.H. 고프리치의『서양미술사』

읽는 사람들이 “참신한 눈으로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속에서 새로운 발견의 향해”(『서양미술사』, p. 37.)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1장의 선사시대 예술과 토착 문화를 시작으로 마지막 28장에는 20세기 중후반의 미술작품을 서술하고 있다. 각 장에서는 하나 또는 여러 문화권, 지역적 맥락 속의 미술을 다룬다.

1950년 초판이 발행될 당시에는 마지막 장인 27장에 피카소, 달리, 자코메티, 마그리트 등의 20세기 초반의 미술가들을 중심으로 다뤘다. 그러나 이 책이 대중적 인기를 얻으면서 제11판부터 고프리치는 28장인 ‘끝이 없는 이야기’를 삽입하고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했다. 28장에는 추상표현주의 화가인 잭슨 폴록을 위시하여 영국의 예술가인 루치안 프로이트, 데이비드 호크니에 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귀화한 영국의 문화적 토대가 고프리치에게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초판이후 개정증보를 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20세기 현대 미술과 동시대 미술의 서술은 미약하다. 또한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이 유럽문화권의 미술이 차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을 때 목차와 연대기표를 보면서 시대별이나 작가별로 쪼개고, 동시에 작품 이미지를 보면 설명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용어는 용어사전을 참고하고 가능한 최신 한국어판을 읽는 게 좋다. 대표적 예술사조(-ism)와 표현 양식, 대표 작가, 대표 작품 등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책의 내용이나 작품에 관한 짧은 글쓰기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 사고와 예술에 관한 관점을 확립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술 서적의 독서를 통해 다양한 시각의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시대적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다.

시각예술 도서 읽는 법



윤 민 희
예술·디자인대학 교수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란 말처럼 예술도서는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의 빛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한다. 특히 현대미술은 난해하고 우리가 사는 동시대의 미술은 더 난해하기에 때론 보는 것만으로는 작품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 예술이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에 매우 추상적이고 복잡하다. 예술은 인간의 총체적 삶 속 거의 모든 행위에 관련되어 우리의 경험을 고양시키며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 예술이란 인간의 창의적 활동과 그 결과물인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무용 등을 칭한다. 예술의 영역 중에서 시각에 치중한 미술은 일명 시각예술, 조형예술 등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칭하는 예술도서란 예술가와 그의 작품에 관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 표현 기법 및 재료 등을 인문학 기반에서 서술한 책이다. 시각예술 영역의 도서는 미술사, 디자인사, 미학, 예술철학 등 이론서와 실기 제작 방법을 위한 도서, 전시회관련 화집, 작가의 모노그래프, 용어사전 등이 있다. 이러한 예술도서는 작품의 감상, 해석, 비평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아마추어를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마추어 독자라면 초기에는 예술 분야의 전반적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책들을 읽는 것이 좋다. 비전공자들을 위한 딱 한 권의 미술관련 서적을 추천한다면, 고프리치(Ernst Hans Josef Gombrich, 1909-2001)의『서양미술사: The Story of Art』를 추천한다. 이 책은 영국의 파이돈(Phaidon) 출판사에서 1950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현재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700만부 이상 판매된 세계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미술서적이다. 이 책은 국내의 미술대학 미술사 수업의 참고서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많은 애독자들이 소장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 태생의 미술사학자인 고프리치는 1936년 영국으로 이주하였다. 당시의 영국 미술사학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다소 고답적인 측면을 가지면서 대중과 거리가 있었다. 반면에 그는 빈의 문화적 분위기에 기반하여 청소년과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기술하게 되는데 그 책이 The Story of Art이다. 영어권의 미술사 도서 대부분의 제목에 The History of Art를 사용하는데, 고프리치는 책제목으로 The Story of Art를 사용했다. 그는 미술사의 의미보다 미술, 또는 예술에 관한 ‘이야기’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에는 연대기적 기술과 양식의 서술에 기반한 미술사 서적이 대부분이었다면 고프리치는 이러한 전통적인 미술사 서술 방법을 지양하고 미술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였다. 고프리치는 복잡한 개념을 평이한 용어와 쉬운 이야기로 서술하는데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그래서 역사 기술에 바탕을 둔 기존

미술사 도서와 비교하면 이 책은 상대적으로 훨씬 쉽게 읽을 수 있다. The Story of Art의 국내 번역본인『서양미술사』는 제목의 Story를 ‘사(역사)’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문화권의 차이를 고려한 번역의 결과이다. “시각예술의 역사에 대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책 중의 하나”라는 파이돈의 리뷰처럼 이 책은 청소년과 예술 입문자를 위한 도서로 분류된다. 그러나 국내의 청소년이나 대중에게 이 책은 그렇게 쉽지 않은 않다. 이야기하듯이 쉽게 썼다 하더라도 서양 문화권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대학생이 읽는 것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양미술사』는 서론과 2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의 ‘미술과 미술가들에 관해’의 첫 머리는 “미술(Art)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라는 두 문장으로 시작된다. 미술이란 정해진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다양한 작품을 제작한 미술가들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프리치는 저자의 역할은 책을